

광주매일 TV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영상뉴스 제보·문의 062)650-2010

[파워인터뷰]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동일 회장

뉴스, 인터뷰/토크, 문화산책 관련 정보 테이블

제22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경건대회 관련 정보 테이블

“진화영의 애교는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었죠”

‘재벌집...’ 김신록 “역동적으로 표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진화영이 괜한 욕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달리 자신에게는 그냥 주어진 것 때문이 아닐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에서 애절한 모성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강렬하게 표현해낸 배우 김신록이 이번에는 절절한 재벌집 딸 진화영으로 변신해 신스틸러(시선을 강탈하는 배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종영을 앞두고 만난 김신록은 “진화영은 욕망이 많은 인물”이라며 “욕구와 욕망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욕구가 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욕망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바라는 마음이예요. 진화영은 항상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때문에 자주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게다가 재벌집이다 보니 바라는 것도 커요. (웃음)”

진화영은 재계 1위 회사를 일군 순양그룹 회장 진양철(이성민 분)의 막내딸로 태어난다. 짹짹하고 애교가 많아 오빠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고명딸이지만, 진화영은 자신이 ‘구색 맞추기 장식용 고명’ 신세라는 것에 분개하며 오빠들처럼 ‘메인 디슈’가 되고 싶어한다.

김신록은 “진화영은 거부감적인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오빠들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고군분투한다”며 “살아남기 위해 눈물, 애교, 유박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렇게 분투하는 연기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말했다.

“인물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도도하다가도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애교를 부리고, 품위를 지키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사람들 앞에서 노발대발하는 등 진화영이 등장하는 순간들을 최대한 극적으로 설계했어요. 극적인 상황들의 충돌이 인물에게 역동성과 입체성을 부여했죠”

순양그룹의 회장을 꿈꾸던 진화영은 욕망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판단을 반복하고, 결국 조카 진도준(송중기)에게 순양백화점을 빼앗겨 순양 일가에서 입지가 잃는다. 진도준의 계략에 넘어가 1천400억원을 뉴데이터테크놀로지에 투자한 진화영은 미친 듯이 오르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폭락해 돈을 몽땅 잃게 되고,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며 눈물로 읍소한다.

김신록은 “이 장면이 이성민 선배님과 일대일로 맞붙는 유일한 장면”이라며 “시작과 동시에 공기가 달라질 정도로 에너지 있는 선배님의 연기 덕분에 저는 수해를 입은 입장”이라고 공을 돌렸다. “티격태격하면 서로 장단이 잘 맞지는 진화영-최창제 커플에 대해 김신록은 “사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의 관계도 분명히 사랑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화영은 집안에서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공주처럼 떠돌아다니고 애매하게 사랑을 받는데, 둘의 관계도 분명히 사랑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화영은 집안에서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공주처럼 떠돌아다니고 애매하게 사랑을 받는데, 둘의 관계도 분명히 사랑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배우 김신록 <저스트엔 테레인먼트 제공>

2004년 연극 ‘서바이벌 퀘인터’로 데뷔한 김신록은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던 간판 배우로, 지난해 ‘지옥’을 통해 대중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김신록은 “다음에는 너무 가난하거나 부자인 캐릭터 말고 평범한 상황에 놓인 인물을 연기하고 싶다”며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평범하다고 통칭 지면서 살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다 특별한 것처럼, ‘알고 보니 특별한’ 사람을 연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태양 이어 대성도 YG 떠난다...“GD는 솔로 계약 협의 중”

태양 이어 대성도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 YG는 27일 “GD와 솔로 계약 협의 중이며, 대성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태양이 YG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프로듀서 테디가 수장으로 있는 더블랙레이블로 적을 옮겼다. 또 다른 멤버 탑은 올해 2월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2006년 5인조 그룹으로 데뷔한 빅뱅



태양과 대성도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은 ‘거짓말’, ‘하루하루’, ‘애라 모르겠다’, ‘꽃길’ 등을 히트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전 멤버 승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하는 등 여러 난관에 휘말리기도 했다.

빅뱅은 술한 논란을 딛고 올해 4월에 신곡 ‘봄여름가을겨울’을 발표했으며,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 곡은 미국 유명 음악지 롤링스톤 선정 ‘올해의 베스트 송 톱 100’ 73위에 오르기도 했다.

TV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1 방송 프로그램 시간표

KCTV 광주방송 채널 정보 및 주요 프로그램 안내

도로교통공단 TBN 광주교통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음력 12월 6일 천문역원 (062)673-2427.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운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행물 소개